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허남린 *

- < >
- I. 들어가는 말
 - II. 페리퍼리로서의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III.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IV.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은 두 가지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나는 중앙권력에서 바라보는 변경에 위치한 페리퍼리로서의 제주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등 외국과의 최선단 접촉점에 서 있는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상반된 인식구조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자료에 입각하여, 제주도의 전통적 역사적 위상을 검토한다.

페리퍼리라는 입장에서 보는 제주도는 무엇보다 중앙을 보호하는 국방의 전초기지였다. 해금정책의 기반에 서서, 왜구의 퇴치에 행정력을 동원했던 조선왕조는 제주도를 왜구침입 봉쇄의 전초기지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한 군사 및 행

*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 아시아학과 교수

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제주도는 본토의 중앙 정부에 말과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특유의 지방 토산품을 공납해야 하는 경제적 페리페리로서 공물이 수탈되는 변경이었다. 세 번째로 제주도는 중앙의 선진문화가 미치기 힘든 미개한 변경지역으로 규정되면서, 조선 전 기간을 통하여 문화교육 및 통제를 받는 유교적 교화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인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자신의 고유 문화전통과 생활관습을 갖고 있는 삶의 프론티어이자 대외적 진출의 전초기지였다. 쌀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은 제주도인을 어업 및 무역의 영역으로 이끌었고, 항해 중 표류되어 외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제주도인은 보다 넓은 식견과 전망을 갖고 사는 프론티어의 개척자였다. 뿐만 아니라 본토의 남해연안으로 이주했던 포작인, 잠녀 등 일부의 제주도인은 외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공간을 창출하면서, 제주도인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여 갔다.

페리페리와 프론티어라는 상반된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은 중앙의 일방적 지배구조, 이에 대처하는 제주도인의 주체적 삶의 방식이 빚어낸 역사적 유산으로, 오늘날에도 그 유산은 갈등을 안은 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진정한 역사적 위상은 제주도인 스스로가 창출하고 보전하려는 노력 속에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심, 변경, 인식구조, 삶의 공간, 통제, 역사적 유산

I. 들어가는 말

1432년경에 완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제주도의 시조신화가 실려있다. 이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태초에 신선 세 사람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사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제주도의 선조인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그리고 부을나(夫乙那)이다.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어디선가 흘러 떠내려 온 나무상자가 있었는데, 이를 열어보니

안에는 돌로 된 또 다른 상자가 있었고, 붉은 띠에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사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 돌상자를 열자 거기에는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 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로 일본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 신선[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면서,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고 오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짝을 이루어서 대업(大業)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이에 세 신선은 일본에서 온 처녀들과 각기 혼인하고 오곡을 심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기르면서 살았는데 날로 부유하고 번창해갔다.¹⁾

이와 같은 내용의 시조신화는 약 1세기 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다만 특기할 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본 신화의 원전이 《고려사(高麗史)》 고기(古記)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제주도의 소위 삼성혈 신화는 이후 삼성사(三姓祠)의 건립과 성종 연간에 조정으로부터의 사액이라는 공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기원에 관한 “정설”로 정착되어갔다. 삼성사의 사액에 관해서는 1729년 영조 연간에도 다시금 논의가 있었는데, 제주 유생 고한준(高漢俊) 등이 탐라 즉 “옛적의 탁라국(毛羅國)”의 조묘인 삼성사에 대한 사액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사액의 요청이 “마치 고국(古國)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의도라 하면서 “번읍(蕃邑)으로 작정하여 신하 노릇을 하고 백성 노릇을 하게 된 지가 또한 몇 백년이 되는인데 감히 이러한 말을 장주(章奏)할 수 있는가” 하면서 허가하지 않았

1) 《세종실록》, 세종지리지/전라도/제주목. 본 발표문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는 국역문을 원문과 대조하여 사용하였음.

다.²⁾ 그러나 1785년 정조는 제주 유학 양경천(梁擎天)의 상소에 응답, 마침내 삼성묘(三姓廟)에 사액(賜額)을 허락하였다.³⁾

위에서 보는 제주도의 시조신화의 발생 및 이것이 정착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한반도와 일본의 접점에 존재하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상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인의 탐라 “고국(古國)”에 대한 의식과 “번읍(蕃邑)”으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중앙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거리감이다. 전자는 제주도의 역사적 연원이 한반도 그리고 일본 양쪽에 접해 있으면서, 양쪽을 삶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후자는 한반도의 중앙권력에서 바라보는 제주도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변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⁴⁾ 역사의 흐름 속에 제주도는 한반도의 정치권력의 변방으로 편입되어 갔지만, 시조신화의 정착과 전승은 동시에 제주도의 그러한 변경성(邊境性)에는 양면이 있음을 환기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는 제주도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양쪽으로 뻗어갈 수 있는 삶의 프론티어이지만, 한반도의 정치중앙에서 보면 변방에 위치한 종속되어야 하는 페리퍼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페리퍼리는 메트로폴리스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변경을 지칭한다. 페리퍼리는 정치적으로는 국가 혹은 정치체의 중심과 내부로부터 격절되어 있는 외연의 경계를 의미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러한 중심과 내부의 지배논리에 의해 규정되고 설정되는 문화와 미개, 주체와 종속, 질서

2) 《영조실록》, 영조 5년 9월 20일 (신묘).

3) 《정조실록》, 정조 9년 2월 17일 (정유).

4) 제주도의 시조신화에 나오는 일본과의 혈연적 결합에 대해서는 그 원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김인호, 《한국 제주 : 역사 문화 뿌리학 (上)》(서울: 우용출판사, 1997), 131-135쪽 참조.

와 무질서 등의 이항 대립구조의 말단에 위치하는 비중심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프론티어는 단선적 이항 대립개념이 아니라, 입체적 개념으로, 복수의 국가 혹은 정치체가 서로 만나는 공간이거나, 이들의 경계선이 서로 겹쳐져 있는 지역 혹은 영역을 의미한다. 때문에 프론티어는 한 정치체의 중심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기 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지역 단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적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확장하고자 한다.⁵⁾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제주도는 조선의 중앙(서울)에서 볼 때는 조선국의 변경에 위치한 페리퍼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주도인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조선과 일본, 나아가 중국, 유구왕국 등의 사이에 존재하는 프론티어의 최전선이자 이의 중심점이었다.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제주도를 둘러싼 이러한 양면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 인식되고, 기술되고 이해되어 왔는지, 그 정형화된 모티프, 즉 토포스를 역사적으로 추출하여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이다.

필자는 제주도에 관한 역사적 토포스의 추출과 의미해석을 위해 조선시대의 공식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주목하여, 여기에 기술된 총 2000건 이상에 이르는 제주도 관련 기사를 검토했다. 이들 기사들을 검토한 결과, 다섯 가지의 공통된 주제를 추출할 수 있었고, 이들 주제들을 다시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두 개의 토포스로 범주화하여 그것들의 역사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물론 전근대 한국 역사에 있어 제주도에 관한 인식의 원형을 전달해주는 자

5) “프론티어” 개념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Lucien Febvre, “Frontiere: The Word and the Concept.” *In A New Kind of History: From the Writings of Lucien Febvre*, Peter Burke, e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208-218쪽을 참조할 것.

료는 《조선왕조실록》 이외에도 많이 있다.⁶⁾ 이들 자료들을 전부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은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우선 《조선왕조실록》에 기술되어 있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보는 “공식적 담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본 논문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는 페리러리의 역사적 토포스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변경성(邊境性)에 대한 인식과 담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강화, 고착되어 왔는가를 조선왕국의 국방의 최전선으로서의 제주도, 지배적 경제생산 체제의 변경으로서의 제주도, 그리고 문화의 변경으로서의 제주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을 제주도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부각되는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이다. 제주도인에게 있어 삶의 현장으로서의 제주도가 어떻게 개척, 창출되고, 그러한 생활영역이 또한 어떻게 유지, 위축, 혹은 확장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궤적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의 해금정책 하의 제주도인이 경험했던 표류 및 해상활동을 다루었고, 다음으로는 생존의 공간으로서의 제주도가 지녔던 구조적 한계를 제주도인은 어떻게 돌파하려 했는가를 제주도로부터 유리되었던 포작인(鮑作人) 및 잠녀(潛女)의 삶을 통해 논의하였다. 문화적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추출하기 힘든 자료적 한계의 관계로, 제 1장에서 문화적 페리퍼리로서의 제주도를 논의할 때, 이에 대치되는 대립항으로서의 문화적 프론티어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가 근대 이후의 제주도의 역사에 어떠한 유산을 드리우고 있는지 이

6) 제주도의 地誌類에 보이는 제주도관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위해서는 藤田明良 「高麗・朝鮮前期の海域交流と濟州島」 『共同研究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 濟州島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19(2001), 14-25쪽 참조.

를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로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본 논문에서 문화적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화적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에 관한 연구는 오랜 세월 다대한 업적이 축적되어 왔다. 앞으로 선학들의 연구업적으로부터 배우면서, 문화적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켰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II. 페리퍼리로서의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1. 국방의 페리퍼리로서의 제주도

조선의 국제관계는 중국에 대한 사대를 중심축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조축으로서 일본에 대한 교린정책 (조선전기까지는 유구국에 대한 교린정책을 포함)을 근간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교린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것도 국가간의 접촉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선에서 억제하는 소극적 의미의 교린으로, 이를 위해 조선정부는 해금정책(海禁)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인의 해외이동, 무역은 공인된 것 이외에는 철저히 금지되었고, 외국인의 조선입국 또한 공식적인 통제무역, 외교 채널을 제외하고는 전면 부정되었다. 특히 일본에 대한 해금정책은 일본 해상민의 불법적 경제활동, 침입이 빈번했던 시기에 있어서는 이를 막는 것이 국방의 큰 과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해금정책은 공식적 통상외교 루트 이

외의 해상 봉쇄를 의미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쓰시마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지역의 지방 정부들은 조선정부가 허용하는 통상외교 관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때로는 통제의 틀을 벗어나 통상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조선의 해금정책에 반하는 후자의 활동은 다름아닌 “왜구”의 사적 무역 활동이었다. 특히 이들의 사적 무역활동이 점차 “해적활동”으로 전개되고, 조선의 영토를 침해하며 약탈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국방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처에 골머리를 앓았다.

조선의 해금정책에 기반한 남방의 국방에 있어 제주도는 중요한 방어거점의 하나였다. 1418년 왜적이 제주의 미곡선(漕船)을 약탈하여 갔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왜구의 침투, 약탈행위는 조선왕조 전 시기를 통해 제주도를 국방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1433년의 예에서 보듯, 왜인들이 “도적질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 왔던” 경우도 있었지만, 사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적”들의 “불법적”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던 관계 없이 단지 격퇴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⁷⁾

왜적의 침탈행위는 약탈대상에 있어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제주도의 상선을 노리는 경우로 이는 빈도는 많지 않았지만, 상선이 항로를 벗어날 경우 약탈에 노출될 위험성은 늘 있었다. 두 번째의 약탈 대상은 제주도에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소위 공선(貢船)으로, 1443년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해 전라도 처치사(處置使)가 보낸 치보(馳報)에 의하면, “제주도 공선(貢船)한 척이 본주(本州)로 돌아올 때에 ... 그런데 역풍(逆風)으로 만나 서여서도(西餘鼠島)에 정박하던 중, 왜선(倭船) 두 척이 와서 배 가운데를 침범하므로, 뱃사공 60여 명이 드

7) 《세종실록》, 세종 15년 윤8월 27일 (정축).

디어 적들과 대항해 싸웠습니다. 창에 맞은 자가 39명인데, 그 중 26명은 죽고 나머지는 살아 남았으며, 포로되어 잡혀간 자는 5명이나 됩니다.”⁸⁾ 1443년의 약탈은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배를 공격한 경우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섯이나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노예무역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크다. 왜적이 주로 노린 대상으로 공물 중에서도 말을 싣고 가는 배를 노렸다는 기사가 종종 보인다.

제주도로부터의 공선을 노리는 것보다 심각했던 것은 세 번째의 형태인 제주도 연안에 직접 침입하여 물품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였다. 1552년 제주목사 김충렬(金忠烈)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이 천미포에 도착해 보니 적왜들이 포구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이 싸우기 시작하였으므로 신도 이끌고 간 군사를 거느리고 힘을 합쳐 접전하였는데, 김인이 적왜 1명을 사로 잡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큰비가 내려 적왜가 물러가기에 진을 치고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상륙하여 접전한 적은 거의 70여 명이었고 선상에 늘어서 있는 자도 거의 1백여 명이었으며 선내에 있는 적은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⁹⁾ 여기에서 보듯 1552년의 경우 제주도 연안에 침입하는 왜적의 규모가 200여명에 까지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왜인들의 제주도 침략은 해금정책이 유명무실화된 19세기 후반에도 끊이지 않고 있었다. 1887년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植)과 제주목사 심원택(沈遠澤)이 올린 장계(狀啓)에 의하면, “가파도(加波島)에서 전복을 따던 일본 배 6척이 모슬포(募瑟浦)에 들어와 정박한 후, 일본 선원들이 제멋대로 상륙하여 촌락에 뛰어 들어와서는 닭, 돼지를

8) 《세종실록》, 세종 25년 6월 10일 (계사).

9) 《명종실록》, 명종 7년 5월 30일 (신해).

약탈했고, 칼을 빼들고 집주인 이만송(李晩松)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으며, 본 모슬포 백성들인 김성만(金成萬), 정종무(鄭宗武), 이흥복(李興福) 등도 구타를 당했습니다.”¹⁰⁾ 불과 4년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전라 감사(全羅監司) 민정식(閔正植)과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조균하(趙均夏)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핏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입니다.”¹¹⁾

위험한 변경으로서의 제주도는 조선조정에 있어 국방의 전초기지였다. 이를 위해 제주목사는 제주도의 방어체계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시에는 왜적을 격퇴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국방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적선의 정박이 쉽지 않은 각 포구의 경우에는 “깊은 구덩이를 설치하고 긴 말뚝을 가로질러 놓거나,” 정박이 가능한 포구인 경우에는 각기 설치한 “방호소(防護所)에 각각 육군(陸軍) 1여(旅) 씩을 나눠 보내서 2번(番)으로 나누고 군관(軍官)을 분정(分定)하여 부방(赴防)”하게 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¹²⁾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러한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방어를 어렵게 한 것은 종종 있었던 왜적을 가장한 조선인들의 공선 혹은 상업선에 대한 약탈행위였다. 1490년 “제

10) 《고종실록》, 고종 24년 8월 17일 (신축).

11) 《고종실록》, 고종 28년 8월 22일 (계축).

12) 《중종실록》, 중종 5년 9월 16일 (기사).

주 사람으로 진상(進上)할 방물(方物)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倭賊)에게 빼앗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왜인(倭人)의 소행으로는 의심스럽고,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인(倭人)의 형상(形狀)을 거짓 꾸며 도둑질한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사태전개이다.¹³⁾ 심지어는 재물에 눈먼 관리가 상선을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전형적인 예로 1613년의 제주목사 이기빈과 판관 문희현 사건을 들 수 있다. 제주목사가 되어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나있던 이기현은 표류하는 상선을 보고 판관 문희현과 함께 이를 약탈했는데, 이들의 죄상에 의하면, “(표류하던 상선에는) 당(唐), 왜(倭), 유구(琉球) 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굉장한 양의 재화를 싣고 있었다. 희현이 그 물건에 탐이 나 달콤한 말로 기빈의 마음을 움직여 그 배들을 습격하고 재화를 나누어 가졌다.... 황견사(黃蘗絲)가 1백 50석에 이르고 명주(明珠), 마노(瑪瑙)의 종류가 1천여 개나 되었다.”¹⁴⁾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는 위험한 변경이자 본토를 보호하는 국방의 전초기지로서 왜적의 침략행위가 끊이지 않는 외세의 침입로였다. 탐라가 중앙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선정부가 설정한 제주도의 역할은 따라서 국방이라는 인식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었으며, 제주도인의 역할 또한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¹⁵⁾ 조선의 변경으로서의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쪽의 평안도 및 함경도의 경계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을 위해 혹은 조선 본토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가로막는 국방의 관문이었다.

13) 《성종실록》,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

14) 《광해군일기》, 광해군 5년 1월 28일 (병술)

15)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군제에 대해서는 김상욱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42-54쪽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2) 경제의 페리피리로서의 제주도

조선은 농업중심의 경제였다. 농업중심의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시한 것이 쌀농사였음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러한 쌀농사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난 제주도의 인민들은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을 이어갔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조선의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보기로 하자.

우선 《세종실록 지리지》는 제주도의 산물로 밭벼, 기장, 피, 콩, 메밀, 밀보리 등을 들고 있고, 중앙에 바치는 공물(貢物)로 각종 굴, 우무[牛毛], 표고, 전복, 미역, 다시마, 오징어 등을 나열하고 있다.¹⁶⁾ 《신증동국여지승람》도 제주도의 토산으로 말(馬) 이외에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동소이한 산물을 들고 있는데, 이를 보면 산도(山稻), 기장, 피, 조, 콩, 팥, 메밀, 보리, 밀 등의 곡류, 감, 황감, 유감 등의 감 종류, 금귤(金橘), 산귤(山橘), 동정귤(洞庭橘), 왜귤(倭橘), 청귤(靑橘) 등의 귤 종류, 그리고 해산물로는 소금, 미역, 우뚝가사리, 게, 소라, 전복, 석결명(石決明), 황합(黃蛤), 해의(海衣), 오징어, 은어(銀魚), 옥두어(玉頭魚), 상어, 갈치, 고등어, 행어(行魚), 문어 등이다.¹⁷⁾

이들 제주도의 토산물 목록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조선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이 빠져있다는 점일 것이다. 제주도의 쌀 부족은 제주에 부임하는 지방관조차 겪어야 했던 문제였음은 1493년의 전(前)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고태필(高台弼)의 상서(上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의) 땅은 바위와 돌이 많고 물이 밑으로 빠지기 쉬워 2,3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이 그냥 드는 형편이라 씨를 붙이는 시기를 잃게 되고, 겨우 싹이 나와도 금방 말라

16) 《세종실록》, 세종지리지/전라도/제주목.

1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8권, 전라도/제주목.

죽기가 쉽습니다. 개간하여 경작할 만한 땅은 겨우 10분의 1이며 오곡(五穀)의 농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논이 드물어서, 세 고을(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수령의 공궤(供饋)하는 쌀마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바꾸어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오직 말[馬]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 기장, 산채(山菜), 해채(海菜)로 보충합니다.”¹⁸⁾ 제주도 최고위의 지방관들조차 물고기와 미역을 갖고 육지로 나가 바뀌어야 겨우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쌀은 귀한 식량이었다.

화산도인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조건은 실로 쌀농사 중심의 조선경제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가혹한 삶의 공간이었다. 이미 15세기 초반의 《세종실록》에서 보듯, “제주는 토지가 본래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농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므로 세공민의 생계가 진실로 걱정이 되는” 상황에, 더 나아가 빈발하는 태풍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그나마 생산되는 농산물도 반감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¹⁹⁾ 1794년 제주목사에 임명된 후 직접 제주 전역을 돌아본 심낙수(沈樂洙)의 결론은, “섬은 토질이 척박하고 재해가 많아 세 고을을 통틀어 수확한 곡식의 총수량이 2만 섬에도 차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든 해에는 외지의 곡식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나갈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다.²⁰⁾ 조금이라도 재해가 들면, “외지의 곡식”이 없이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제주도, 그가 결론 지은 궁여지책은 “미역을 먼저 바치고 곡식을 받기도 하고 혹은 곡식을 먼저 받고나서 미역을 바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였다.²¹⁾ 조선 전 기간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수 없이 되풀이하여 베푼 제주도에 대한 구휼, 진휼 노력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²²⁾ 중앙에서 베푼

18) 《성종실록》, 성종 24년 8월 5일 (정묘).

19) 《세종실록》,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20) 《정조실록》, 정조 18년 3월 2일 (기축).

21) 《정조실록》, 정조 18년 3월 2일 (기축).

는 구휼의 인정(仁政) 없이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제주도의 경제적 변경성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조건이 배태한 구조적 숙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제적 변경성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가? 제주도의 척박한 경제적 변경성에 아랑곳없이 봉건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눈독을 드린 것은 제주도의 토산물인 말의 징발이었다. 1408년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조원(趙源)이 국마(國馬)를 번식시킬 방책(方策)을 조정에 올렸다. “본주(本州)를 보건대, 땅이 따뜻하고 풀이 무성하며, 산이 깊어도 호랑이가 없어서 축산(畜産)이 잘 번식합니다.”²³⁾ 제주도는 국마 즉 나라의 말을 생산해 바쳐야 하는 지방으로 설정되고, 제주도인에게 강요된 이러한 국마의 공물 책무는 점마사 등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조선 전 기간을 통하여 그 이행이 철저히 감독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굴, 약재, 해산물 등의 특이한 토산물의 산지로서, 공물의 징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정부의 육구를 매해 충족시켜야 했다. 제주도에서 바치는 공물의 운송체계는 이미 15세기 초에 확립되었는데, 생명을 걸고 매해 다섯 차례 왕복하는 세 척으로 구성된 제주도의 공물선단은 “한 척마다 영선 천호(領船千戶) 한 사람, 압령 천호(狎領千戶) 한 사람, 두목(頭目) 한 사람, 사관(射官) 네 사람이고, 격군(格軍)은 큰 배에 43명, 중간 배에 37명, 작은 배에 34명”인 체제였다.²⁴⁾

말과 더불어 매해 대량으로 갖다 바쳐야 하는 굴의 경우, 조정의 입

22) 19세기의 제주도에 대한 진흥책을 환곡제도와 관련지으면서 논의한 기존의 업적으로는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에 실려있는 강창룡 <조선후기 제주 환곡제의 운영실상>이 가장 상세함.

23) <태종실록>, 태종 8년 12월 25일 (무술).

24) <세종실록>, 세종 7년 7월 15일 (임오).

장에서는 “종묘(宗廟)에 천신(薦神)하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므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한 토산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까지 거두어 갔는지 벌써 15세기 중엽 1445년의 《세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공물(貢物)을 채우는데 나무를 심는 집에 겨우 열매가 맺으면 강제로 이를 감시하여 지키도록 하고, 낱수를 헤아려서 표지를 달고, 조금이라도 축이 나면 곧 징속(徵贖)하게 하고, 또 주호(主戶)로 하여금 관부(官府)까지 운반해 오게 하며, 만일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형벌을 엄하게 적용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무를 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는 혹 뽑아 버리기까지 합니다.”²⁵⁾ 굴의 가혹한 공물 징수에 견디다 못한 나머지, 굴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리기까지 했을 정도로 제주도의 상황은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피땀 흘려 가꾼 생산물을 아무 댓가 없이 다 바치고 빼앗긴 후 먹을 것이 없는 제주인들은 살아 남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말과 소를 잡아먹어야 했다. 그러나 말과 소를 잡아먹는 행위는 국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당사자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마적(牛馬賊)으로 낙인찍히고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우마적 단속에 대한 많은 기사는 우마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산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적 변경성은 조선 특유의 경제체제가 빚어낸 구조적 산물이었다. 농업중심의 경제를 기반으로 상업의 발전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던 조선의 지배계급은 제주도의 토산물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이지, 이를 쌀, 옷감 등의 다른 생산물과 교환 가능한 상품재화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⁶⁾ 상업이 최대한 억제된 상

25) 《세조실록》, 세조 1년 12월 25일 (병인).

26) 참고로 19세기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공물 진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의 진상의 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를 참고할 것.

태에서, 그나마 생산해낸 토산물을 공물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 댓가없이 강제로 거두어 가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선정(善政)의 이름으로 구휼 곡식을 보내주는 조선의 경제체제, 다름아닌 이러한 구조 자체에 위로부터 강요된 제주도의 경제적 변경성의 본질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문화적 페리페리로서의 제주도

제주도의 변경성을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대상화했던 것이 제주도의 풍속에 관한 인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제주도의 풍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성의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며, 또 초가가 많고 빈천한 백성들은 부업과 온돌이 없고 땅바닥에서 자고 거처한다.... 사투리가 난삽하다. 촌 백성의 말이 난삽하여 먼저는 높고 뒤는 낮다.... 발머리에 무덤을 만든다. 상사를 마친 지 백일이면 복을 벗고 발머리를 조금 파고 무덤을 만든다. 간혹 삼년상을 행하는 자도 있다. 풍속이 풍수지리와 점을 사용하지 않고 또 부처의 법도 쓰지 않는다.... 음사(淫祀)를 숭상한다. 풍속이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산과 숲, 내와 못, 높고 낮은 언덕, 나무와 돌에 모두 신의 제사를 베풀다.”²⁷⁾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실은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다양한 풍속과 관습의 전통을 연면히 향유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생활관습과 문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중앙의 풍속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문화의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를 특징지우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럼에도 그러한 지표는 중앙의 관점에서는 부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다르고 “이상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변경”의 문화에

2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8권, 전라도/제주목.

대한 부정적 규정은 프론티어의 대극점에 위치한 “중앙”의 자기중심적 시선의 폭력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중앙의 관점에서, 제주도의 “별나고 야만스런 풍속,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인식하는 본토의 관료 및 지식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시각은 곧 제주도인에 대한 교화(教化) 노력으로 전화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의 연원은 조선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13년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윤임(尹臨)은 제주도의 “절부(節婦)로 포상(褒賞)할 만한 자”를 추천하면서, “정씨(鄭氏)는 나이 20에 남편이 죽었으나 절개를 지켰습니다. 족친(族親)이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정씨는 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남편이 비록 죽었다 하지만 어찌 차마 그를 버리리오. 만약에 다시 와서 나에게 강요한다면 반드시 몸을 바다에 던져 죽고 말 것 이라’ 하고, 드디어 도망하니, 일가 친척이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정씨는 부도(婦道)를 온전히 하여 나이 70이 되었다”고 보고했다.²⁸⁾ 1427년 제주도 찰방 김위민(金爲民)은 조정에 올린 장계에, “제주의 풍속에 공사간의 계집종과 양민 집의 딸을 유녀(遊女)라고 명칭하여, 장부에 이름을 적어 놓고 관비(官婢)와 같이 부린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것들이 장사아치를 만나면 음란한 행동으로 재리를 취하여 그 배필을 문란하게 하므로, 노역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징계를 보이며 음란한 풍기를 금하기 위함이라”고 주진하고 있다.²⁹⁾ 제주도 여성들의 풍속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연구테마이지만,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앙의 “문화인”들이 제주도의 “야만적” 풍속을 교정하는데 있어 먼저 주의를 경주한 것이 여성의 절개였다는 점이다.

여성의 절개에 대한 강조로부터 시작된 중앙의 “문화인”들의 제주도

28) 《태종실록》, 태종 13년 6월 11일 (무오).

29) 《세종실록》,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풍속에 대한 교화노력은 곧 효의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1430년 전라도 감사의 공문에 의거하여 예조는 임금에게 아뢰기를, “제주에 사는 전 교도(教導) 양심(梁深)이 나이 15세에 아버지가 임질(淋疾)을 앓는데 사방에서 약을 구해 들여서 병을 고치게 하였고, 아버지가 죽자 여묘(廬墓) 살이를 하는데 예를 극진히 하였고, 또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기었으며, 어머니가 죽자 또 여묘를 살려 하니, 형제와 친척이 모두들 집이 가난하다고 이를 말리었으나, 듣지 않고 자신이 흙과 돌을 날라서 무덤을 쌓고 소대상(小大祥)과 담제(檀祭)의 절차를 모두 가례(家禮)대로 집행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정문(旌門)을 세우고 관직을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세종은 “여묘를 3년간 사는 것은 아들된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다 밖에 있는 사람이니 그의 효성을 정문(旌門)으로 표시하라”고 윤허하였다.³⁰⁾ 여성의 절개와 효의 가치는 조선사회 전반에 적용된 교화정치의 중심적 과제였지만, 제주도인의 경우 특기할 점은 “바다 밖의 사람”이 효를 실천했으니, 이는 특별히 가상하다는 논리였다. 그 다음 해인 1431년에도 예조는 제주 사람 부사정(副司正) 김비(金庇)의 효행을 보고하면서, “어미가 죽으매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바짝 여위어 예절에 지나쳤으며, 분묘를 지키고자 할 때 형제와 친척들이 모두 집이 가난하여 노복(奴僕)이 없으므로써 이를 말렸으나, 김비는 듣지 않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 공전(供奠)하기를 생시의 섬김과 같이 했다”고 하면서, 김비를 정표(旌表)하고 녹용(錄用)하십사고 건의했다.³¹⁾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의 풍속을 교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1435년의 향교의 설립과 토호 지배계급에

30) 《세종실록》, 세종 12년 11월 9일 (병오).

31) 《세종실록》,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대한 유교 교육으로 발전되어 갔다. 유교교육을 위해 같은 해에 세종은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역경(易經)》, 《춘추(春秋)》,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각기 2질(帙)씩, 그리고 《소학(小學)》 10질을 제주도의 향교(鄕校)에 하사하였다.³²⁾ 유교경전을 제주도에 특별히 하사하는 전통은 그 후 계속 이어져 예컨대 성종은 1493년에 《사서(四書)》와 《시경(詩經)》, 《소학(小學)》 등을 보내면서 유업(儒業)에 힘쓸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임금의 거소로부터 멀리 바다 밖에 떨어져있는 관계로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고, 수령들이 제멋대로 정사를 좌지우지하며, 아니면 탐관오리의 학정에 의해 임금의 교화가 가로막힌다는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중앙의 교화노력은 현지에서 실제로 교화를 실행하여야 하는 주체인 지방관 및 향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었다. 16세기말, 17세기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제시된 것이 제주도와 인연이 있는 인물을 기리는 서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선조 연간 (1578년)에 세워진 굴림서원(橘林書院)은 1682년 숙종으로부터 사액을 받고, 이와 더불어 제주(濟州)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과 참판(參判) 정운(鄭蘊), 그리고 제주목사였던 문충공(文忠公) 송인수(宋麟壽)와 순무어사(巡撫御史)로서 제주를 방문한 적이 있던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기리는 서원이 하나하나 새로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³³⁾

이러한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중앙에서 볼 때 만족할 만

32) 《세종실록》, 세종 17년 9월 21일 (기축).

33) 《숙종실록》, 숙종 8년 6월 23일 (기해).

한 수준만큼 유교적으로 교화되었다는 인식은 확산되지 못했다. 토속 신앙의 시설들이 파괴되고 유교교육이 강조되었지만, 제주도의 전통적인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앙의 부활,³⁴⁾ 그리고 삼성묘(三姓廟)에 대한 사액의 하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의 조정도 제주도의 변경적 종교문화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⁵⁾ 제주도의 문화적 변경성은 중앙의 왕화가 미치기 힘든 곳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의 전제 하에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1785년 제주도에서 전처와 후처가 서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접한 조정은, “아득히 먼 지역의 민속(民俗)이 무지(無知)하여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법에 있어 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상(倫常)의 경우는 풍화(風化)와 관계되므로 마땅히 거듭 효유(曉諭)하여 섬의 풍속으로 하여금 예(禮)로써 범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 있었다.³⁶⁾ 19세기말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제주에 기항하는 선박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를 걱정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은 1890년, “제주(濟州)는 바다의 한 구석에 아주 치우쳐 있어서 백성들의 습속이 어리석고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섭하는 일에 어둡기 때문에 외국 배가 와 닿은 것을 보면 서로 의심하고 걸핏하면 말썽을 일으킨다”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었다.³⁷⁾ 조선이 망하는 순간까지 제주도는 중앙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어디까지나 중앙의 문화와 대비되는 “저속하고 특

34) 《숙종실록》, 숙종 45년 11월 4일 (임신).

35) 《정조실록》, 정조 9년 2월 17일 (경유).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에 관해서는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제사>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180-188쪽을 참조할 것.

36) 《정조실록》, 정조 9년 5월 12일 (경신).

37) 《고종실록》, 고종 27년 12월 3일 (무술).

이한” 습속의 문화 변경지대였다. 이는 다름아닌 제주도 문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징표였지만, 조선의 중앙에 있어 이러한 제주도의 문화적 생명력 내지 주체성은 단지 부정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Ⅲ.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1. 경제적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

조선의 해금정책 하에서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 이국 내지는 이국인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중국, 일본과 맺어진 공식적 외교통상의 루트, 조선 전기에 전개된 유구국과의 외교통상 및 표류인의 송환에 수반하는 교류 이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국가외교의 루트를 넘어 실제로 이국을 경험한 민간의 조선인은 적지 않은 수에 이른다. 이들을 이국에 연결시켰던 통로는 표류라는 해난사고였다. 조선인의 이국으로의 표류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반도에 있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으나, 특히 제주도인의 표류는 그 표류의 범위 및 빈도에 있어 돌출적인 위치를 점한다.³⁸⁾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왕왕 외국으로부터의 항해자가 표류되어 오는 최남단의 기착점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는 해금의 국경을 넘어, 민간 차원에서 외국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던 조선의 대외적 교통의 프론티어였다.

이 가운데 멀리는 유구국에까지 흘러갔던 제주도인의 표류는 여러 건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표류 제주도인들이 멀고 먼 이국 유구에서 보고

38) 조선시대의 표류민에 대한 개괄적 연구사를 위해서는 이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서울: 국학자료원), 2000, 9-28쪽을 참조.

느꼈던 견문 중에서 해금정책 하의 조선과 비교되는 국제적 분위기의 풍경을 보기로 하자.

1457년 제주도의 한금광(韓金光), 김신석을이(金新石乙伊), 승동(升同), 양성(陽城)과 사노(私奴) 복산(卜山), 오지(吾之), 득산(得山), 복세(卜世)와 양녀(良女) 지내(之內)와 사비(私婢) 양장(陽莊) 등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 유구(琉球)에 이르렀다. 5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조선에 송환된 이들은 이른바 유구국 표류기를 정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양성 등은 표류된 뒤 최종적으로는 유구국의 왕도(王都)에서 5리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공관(公館)에 수용되었는데, “공관 옆 토성(土城)에는 1백여 가구가 있었는데, 모두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매 집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려가면서 양성 등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당시 국제무역으로 상업이 번창하였던 유구국은 중국의 전화(錢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인들이 강(江) 연안에 배를 정박(碇泊)시키는 곳에 일본 여국(女國) 사람들도 또한 와서 교역하였고.... 시장은 강(江)가에 있었는데, 남만(南蠻), 일본국(日本國), 중국의 상선(商船)이 와서 서로 교역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⁹⁾ 마찬가지로, 1477년 표류되어 유구국까지 흘러 갔던 제주도인 김비을개(金非乙介), 강무(姜茂), 이정(李正), 현세수(玄世守), 이청밀(李靑密), 김득산(金得山), 양성석이(梁成石伊), 조괴봉(曹怪奉) 등이 1479년 조선을 방문한 유구국(琉球國)의 사신(使臣) 일행 219명과 함께 송환되어 귀국하였는데, 이들도 곧 자신들의 표류기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들이 본 유구국의 시장에는 남만국(南蠻國)의 비단을 비롯한 각종 옷감, 도자기 등이 쌓여 있었고, 중국 상인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져 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특히 강남인(江南人)

39) 《세조실록》, 세조 8년 2월 16일 (신사).

및 남만국(南蠻國)의 상인들이 끊이지 않고 왕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이와 같은 유구국의 번창하는 국제무역, 상업에 대한 조선 조정의 반응은 호기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유구국의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기록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남방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유구국의 번영도 포르투갈 세력의 동점에 의해 그 빛이 바래기 시작하였다. 특히 포르투갈 상인집단이 1511년 동남아시아 무역항로의 요충지인 말레이반도의 말라카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유구국의 무역활동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구국에 표류했다 돌아온 제주도인 박손(朴孫) 등의 보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표류기에는 유구국의 해상무역에 대한 언급은 없고, 유구의 이국적 풍속에 대한 소개만 그려져 있다.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표류민 문제는 이국의 풍속, 정치, 경제생활 등에 대한 관심에서 점차 쌍방호혜적인 표류민의 송환이라는 외교적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해난사고인 표류 자체는 계속 발생하지만, 표류는 외국의 풍속과 제도를 접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프론티어적 정보원의 역할에서, 표류민의 송환을 둘러싼 외교 교섭의 접점의 제공이라는 사건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조선후기의 특기할 만한 대표적 표류사건은 1653년 제주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일 것이다. 당시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의 치계(馳啓)에 의하면,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밀려왔기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

40) 《성종실록》, 성종 10년 6월 10일 (을미).

도 다릅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흑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 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서로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¹⁾ 이외에도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은 청국의 상인들, 일본의 어부들 등 끊이지 않았으나, 조선의 관심은 해금의 방어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인들의 해상활동이 해금정책의 통제에 묶여 질식된 것은 아니었다. 농업중심의 경제체제, 무역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억제를 겨냥한 해금정책이라는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제주도인의 경제활동 영역은 위축되지 않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세기의 제주도인의 해상활동, 상업활동의 실상을 전해주는 《濟州啓錄》이다. 《제주계록》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되었는 바,⁴²⁾ 본 여기서는 제주도인의 해난, 표류사건에 관한 장계 (105건)에서 알 수 있는 1845년에서 1881년 사이에 발생한 98건의 해난사례가 시사해 주는 제주도인의 해상활동의 의미를 보기로 한다.

이들 해난사고는 선박의 침몰, 대파, 그리고 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를 뒀던 선원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16건, 행방불명이 18건, 그 외는 전원생환 (39건) 아니면 일부생환 (25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의 항로는 제주도 및 연안도서, 그리고 제주도와 본토 사이의 왕래를 포함하고 있다.⁴³⁾ 해난사고를 당한 이들 배들의 항해목적은 어로가 33

41) 《효종실록》, 효종 4년 8월 6일 (무진).

42) 이에 대해서는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및 六反田 豊 (로쿠탄다 유타카)의 일련의 논문이 있다.

43) 六反田 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濟州啓錄』の分析」, 『年報朝鮮学』通号 7 (1999), 63-65쪽

건, 물자수송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는 상업판매 (7건), 해초채취 (6건), 진상품 등의 수송 (5건)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물자수송에 관한 것으로, 배로 실어 날랐던 물자는 해초류, 사기, 옹기, 건축자재, 쌀, 면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때로는 본토에까지 진출하는 상업판매에 관련된 것이 다수 확인된다.⁴⁴⁾ 각 조난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역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상 외로 제주도인의 경제적 해상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삶의 영역이 지배적 경제시스템의 범위를 넘어 다기하게 발달된 항로를 중심으로 확장 전개되고 있음은 경제적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의 성격을 잘 대변해준다고 할 것이다.

2. 삶의 프론티어 공간의 창출: 포작인과 잠녀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많은 제주도인들은 생존의 길을 찾아 때로는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녀야 했다. 성종은 1477년 제주목사 정형(鄭亨)에게 이르기를, “근래 듣건대, 본주(本州)와 정의(旌義), 대정(大靜)의 인민(人民)들이 경상도, 전라도에 흘러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고 하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⁴⁵⁾ 이에 대해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주 사람들이 역(役)을 피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와서 우거(寓居)하는데, 이치상으로는 본고장에 돌려보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옮겨서 이사(移徙)하는 것을 꺼려하여 차츰차츰 도망하여 흩어져서 외딴 섬으로 깊이 들어가니,” 강제 쇠

44) 六反田 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 『濟州啓録』の分析」, 64-70쪽 및 고창석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219-233쪽을 참조할 것.

45) 《성종실록》,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환하기 보다는 소재지 고을의 호적에 편입시켜 정착시키고,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키자고 건의했다.⁴⁶⁾

그러나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하삼도의 연안으로 흘러들어온 이들에 대한 중앙관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병조참판(兵曹參判) 박건(朴健)이 차자(箭子)를 올려 말하기를, 근래 제주도로부터 진주(晉州), 사천(泗川), 고성(固城), 흥양(興陽)에 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3백여 구(口)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들은 “조선인(朝鮮人)인지 왜인(倭人)인지 구별할 수 없는 자들”로서 “백성들의 목숨을 해치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들의 유리에 대해 박건(朴健)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주(濟州)에서 육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농업(農業)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직 고기잡이만을 일삼으니, 대저 풍랑(風浪)의 사이에서 고기잡이하더라도 반드시 많이 잡을 수는 없으므로, 만약 이득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침탈(侵奪)하게 되는데,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농업을 일삼지 않고” 어업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제주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진하고 있다.⁴⁷⁾

남해안 지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제주의 주변인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부정적 시각은 계속 이어졌다. 1482년 지평(持平) 이의형(李義亨)은 임금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진주(晉州)와 사천(泗川) 지방에 많이 우거(寓居)하면서 호적(戶籍)에 등재(登載)하지 아니하고, 해중(海中)에 출몰(出沒)하며 왜인(倭人)의 말을 배우고 왜의 의복(衣服)을 입고서, 해물(海物)을 채취(採取)하는 백성들을 침략(侵掠)하니, 청컨대 추쇄(推刷)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소서”라고 건의하고 있다.⁴⁸⁾ 이들 제주도로부터 유리되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46) 《성종실록》,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47) 《성종실록》,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같은 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유순(柳洵)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병조는 아뢰기를, “포작인(鮑作人)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 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몰래 도둑질을 하니 그 조짐이 염려스러우나, 다만 현재 드러난 죄상(罪狀)이 없으므로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⁴⁹⁾ 제주도로부터 흘러들어온 부류를 “도적질을 하나 아직 드러난 죄상은 없는” 포작인들이라고 자기모순의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기사이다.

제주도 출신의 포작인에 대한 논의는 1485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에 대한 중앙의 인식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포작인들은 “집이 없이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배 위에서 기생(寄生)”하는 무리로서, “본래 향산(恒産)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또한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며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오랫동안 선상(船上)에 있으므로,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법령(法令)으로 다스리기가 어렵고, 평민(平民)으로 대우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제주 포작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제주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은데다가, 전토(田土)가 척박(瘠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떠돌아 다니며 사는 자가 매우 많아서, 벌처럼 무리지어 모이고 개미처럼 떼지어 모이는” 위험한 존재들이라 결론짓고 있다.⁵⁰⁾

정처없이 떠도는, 농업에서 유리된 향산이 없는 무리로, 왜와 구별되기 힘든 위험한 존재들이란 인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포작인들의 이용가치에 주목하는 의견도 한편으로는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48) 《성종실록》, 성종 13년 윤8월 12일 (무인).

49) 《성종실록》,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

50) 《성종실록》,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1485년 김승경(金升卿)과 유순(柳洵)은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이미 배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나누어 배치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적(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수군(水軍)의 제도와 같게 하되 번(番)들고 교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며.... 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수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¹⁾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왜구의 침탈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조선 정부는 때로는 “해적 노릇”을 하는 포작인들을 수군의 격군(노젓는 노동력)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동성이 강한 포작인들을 부역의 형식을 빌어 조선의 수군에 조직적으로 편입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00년 전라도 관찰사 윤개(尹溉)는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서 육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제주도로 쇠환(刷還)해 가는 문제, 특히 전라 우수영(右水營)에 등록되어 있는 포작한(鮑作漢)들을 쇠환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군절도사인 유홍(柳泓)이 이에 대해 “저들이 모두 본도에서 쇠환되면 배를 부릴 사람이 없게 된다”고 반대하는 저간의 사정을 개진하고 있다.⁵²⁾ 조선의 수군은 그 군역이 가혹하여 천역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었는데, 1601년 경상도 암행어사 조수익이 언급하고 있듯이,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전혀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布)를 마련하여 해변에서 포작(鮑作)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립(代立)시키는데, 그 포작하는 무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가고 없어 그 전에는 1백 호나

51) 《성종실록》,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52) 《선조실록》, 선조 33년 8월 25일 (을미).

되던 마을이 지금은 겨우 1~2호밖에 남지 않는 실정”이었다.⁵³⁾ 임진란의 참화를 겪었으면서도, 한 때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수군의 편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허술해졌고, 이에 따라 격군으로서의 포작인들의 이용가치 또한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있어 포작인들은 격군으로의 징집대상에서 다시 점차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계속 유리하여 육지로 살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제주의 지방관들은 군액(軍額)의 감소를 막고자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로부터는 각종 명목의 세금을 최대한으로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1702년의 숙종실록은 제주 수신(濟州守臣)의 장계(狀啓)를 전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른바 어호(漁戶)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겸하는 격군(格軍)의 아내는 잠녀(潛女)라고 일컫는데, 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포작(鮑作)은 20필(疋)을 밑돌지 않으며, 잠녀(潛女)도 또한 7, 8필에 이르게 되니, 한 가족 안에서 부부(夫婦)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복, 각종 오징어, 분곽(粉藿) 등을 따는 역(役)이 모두 이들로부터 나와서 경영되고, 본고을의 장수와 병졸(兵卒)에 대한 지공(支供)과 공사(公私)의 수응(酬應)은 또한 이 숫자 이외에 없으니, 만약 별도로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이들 무리들이 수년 동안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⁵⁴⁾

제주도의 포작인과 잠녀, 그들에게 있어 제주도 및 남해안의 연안지역은 생존을 위한 삶의 프론티어였지만, 조선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그들은 다만 통제의 대상, 이용과 수탈의 대상에 불과한 주변인이었고, 제

53) 《선조실록》, 선조 34년 4월 1일 (무진).

54) 《숙종실록》, 숙종 28년 7월 12일 (신유).

주도와 남해안의 연안지역은 행정단위의 경계성이 지켜져야 하는 페리 퍼리의 분절지역이었다.

IV. 맺음말

조선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상은 주변이자 변경이었다. 특히 왜구의 침탈에 골머리를 앓던 정부로서는 왜구의 활동영역권 안에 들어있는 제주도는 국경의 남단에 위치한 국방의 최전선이었다. 제주도에 부여된 역할에 있어 본토를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써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시되었음은 조선시대의 전 역사를 통하여 변함이 없었다.

이에 덧붙여, 제주도는 해금정책의 적용에 있어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요주의 지역이었다. 조선의 해금정책은 농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측면 지원하고, 국제무역 및 상업활동의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 근간책이었다. 이러한 해금정책에의 집착은 자연히 제주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적 강제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조선정부는 제주도인의 생존 역량을 제한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제주도의 토산물을 최대한 수탈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말, 꿀, 미역, 전복 등의 토산물은 상품재화로서의 경제재가 아니라, 값을 치루지 않고도 무력으로 그냥 빼앗아 갈 수 있는 공물에 불과했다.

동시에 제주도는 위로부터 강요되는 물질적, 인명적 희생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이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고 강제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 문화의 변경지역으로서, 왕화가 미치지 못하는 주변적 풍속의 땅으로서, 중앙의 문화적 선정에 갑읍해야 했고, 토속적 문화전통을 버리기를 강요당하면서, 길고 긴 유교화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앙으로부터

의 교화가 제주도인의 문화전통을 어느 정도 파괴하고 전통 풍속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는지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조선 유교 문화권의 속박 하에서, 유교문화의 폭력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페리페리로서의 제주도는 종속을 강요하는 외부압력에 일방적으로 굴한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이곳에서 생존해야 하는 제주도인에게 있어서는 제주도는 중앙을 위해 존재하는 페리페리이기에 앞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프론티어였기 때문이다. 생존의 프론티어는 그러나 때로는 위협이 잠재한 사투의 장이기도 했다. 상업활동, 고기잡이, 본토와의 무역 등에 종사했던 많은 제주도인들의 항해는 언제나 재앙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표류 및 해난 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제주도의 프론티어가 감내해야 하는 하나의 숙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서의 제주도의 프론티어는 때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조선의 전근대 사회가 노정하는 구조적 한계의 벽에 부딪치곤 했다. 이러한 경우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삶의 영역 자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포작인 및 잡녀들의 남해안 연안지역으로의 이주, 그리고 그들의 유동적인 해상생활은 중앙에서 보면 지켜야 할 페리페리 경계의 교란 내지는 파괴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안적인 삶의 공간의 창출을 의미했다. 조선의 정착 지향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이렇듯 제주도인은 페리페리의 고착성에 도전하고 유동적인 삶의 공간을 확장해 갔던 것이다.

제주도의 전근대의 역사적 토포스는 근대 이후 그 존재양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적 틀은 많은 부분에 있어 온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인들은 식민지시대에는

어느 지역의 조선인 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본토 그리고 일본에까지 확장하였으며, 특히 지금에 이르기까지 돈벌이를 위한 계절적 이동, 해녀 등의 해외 진출 등은 삶의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의 역사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⁵⁵⁾ 제주도의 관광지로서의 문화적 국제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역사성은 발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반면에 해방 이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던 제주도는 외부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용가치가 높은 페리퍼리로, 이로 인해 언제 또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측면 역시 온존해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의 정치구조에 통합되고 종속되어야 하는 변경, 중앙의 이데올로기 방어의 최전선으로 화했던 현대사의 기억에는 중심과 주변의 이중구조가 앙금처럼 용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전통문화의 “중앙”에의 적응 내지는 종속화 그리고 현대화도 제주도의 변경성을 강화시키는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앙 행정체계에의 편입을 통해 근대화 과정을 거쳤지만, 중앙으로부터의 정치 문화작용이 미래의 제주도인의 삶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보다 장기적인 제주도인의 판단과 실천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55) 제주도 해녀의 일본진출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위해서는 李善愛 『韓国海女の歴史：わかめ漁場利用をめぐる』 『共同研究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済州島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19 (2001), 98-100쪽 참고. 잠녀와 연관지우는 제주 해녀의 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위해서는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신행철 외,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340-345쪽 참조.

참고문헌

- 《세종실록》, 세종지리지/전라도/제주목.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8권, 전라도/제주목.
- 《조선왕조실록》
- 강창룡 <조선후기 제주 환곡제의 운영실상>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 고창석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 신행철 외,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 (上)》(서울: 우용출판사, 1997).
-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의 진상의 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 이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서울: 국학자료원, 2000).
- 조성운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제사>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7).
- 李善愛 『韓国海女の歴史: わかめ漁場利用をめぐる』 『共同研究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濟州島を中心に』 青丘學術論集19 (2001).
- 藤田明良 『高麗・朝鮮前期の海域交流と濟州島』 『共同研究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濟州島を中心に』 青丘學術論集19 (2001).
- 六反田 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 『濟州啓録』の分析』 (『年報朝鮮学』 通号 7 (1999)).
- Lucien Febvre, "Frontiere: The Word and the Concept." In A New Kind of History: From the Writings of Lucien Febvre, Peter Burke, e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Abstract

The Historical Topos of Cheju Island: Periphery and Frontier

Hur Nam-lin*

The historical topos of Cheju Island has been formulated along the structure of binary perceptions. One is a Cheju Island, which is perceived by the central power, located at the periphery; and the other is a Cheju Island located at the frontier that offers points of contact with Japan and others. Based on *The Chronicle of Choson Dynasty*,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traditional and historical topos of Cheju Island from an angle of these binary perceptions.

In terms of periphery, Cheju Island was, more than anything else, a front-base of national defense that was to protect the center. The Choson court, which imposed a nationwide maritime prohibition policy and paid utmost attention to the expulsion of "Japanese pirates," established Cheju Island as the frontal defense line against the Japanese pirates and, for that, employed relevant military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econd, Cheju Island was an economic periphery of exploitation by the center. Its residents were constantly forced to pay tribute such local staples as horses and maritime produc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Cheju Island was defined by the center as an uncivilized periphery where the benefit of center'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dvanced culture hardly reached. During the Choson period, Cheju Island remained an object of Confucian enlightenment project promoted by means of cultural education and control.

In contrast, from the perspective of Cheju residents' own stance, Cheju Island was a frontier of life as well as a front-base of adventurism, which had its own cultural tradition and customs and manners. The natural environments were not suitable for rice cultivation, and they drove the Cheju islanders to the arena of fishery and trade. Thanks to the castaways who drifted to foreign countries and returned back with experiences abroad, the Cheju residents acquired a wide range of new knowledge about the other, expanded their visionary outlook, and nurtured themselves in the spirit of frontier. Furthermore, those, including fishers and woman divers, who moved to the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mainland, carved out new spaces of life in many different ways and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sphere of Cheju islanders' life activities.

The historical topos of Cheju Island, which has stood on the binary perceptual structure of periphery and frontier, has produced the legacies that have juxtaposed the unilateral control of the center against the subjective way of life of the Cheju residents, who have tried to counter the control from above. These legacies still linger on in contradiction. But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it is the Cheju people themselves who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and preserve the real historical topos of Cheju Island.

Key Words

center, border, perceptual structure, space of life, control, historical legacy

교신 : 허남린 주소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329 West Mall
Vancouver, BC Canada V6T 1Z4
(E-mail : namlin@interchange.ubc.ca 전화 : 캐나다 604-822-5191/fax : 822-8937)

최종 투고일 : 2007. 6. 28.

최종 접수일 : 2007. 7. 26.